



## ‘지존’ 신지애 日서 일낸다

LPGA 미즈노클래식 6일 개막... 신인왕 확정이어 상금·다승왕·올해의 선수 등극 노력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 2년 연속 우승으로 투어 다관왕의 발판을 놓을 태세다.

6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에현 시마의 긴테쓰 가시고지마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리는 미즈노클래식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우승할 경우 2년 연속 정상과 함께 투어 각종 부문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다. 현재 신지애가 노리는 타이틀은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최저타수, 다승, 신인왕 등이다. 이 가운데 신인왕은 이미 확정 지었고 나머지 부문에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크리스티 커(미국), 미야자토 아이(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지애는 올해의 선수에서 141점으로 오초아(131점), 커(118점), 미야자토(111점)를 앞서고 있고 상금 부문에서도

166만달러로 2위 미야자토(145만달러)를 따돌리고 있다. 다승 부문에서는 3승으로 오초아와 함께 공동 선두다. 최저타수 부문은 커가 70.31타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오초아(70.32), 미야자토(70.33)에 이어 신지애가 4위(70.38)다.

이번 시즌 미즈노클래식을 포함해 정규 투어 대회가 3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4승째를 거둔다면 신인왕까지 포함해 최대 5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LPGA 투어 정식 회원이 아니면서도 2위 하토리 마유(일본)를 무려 6타 차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던 신지애로서는 같은 코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자신감이 있다. LPGA 투어 회원 43명과 일본여자프로골프 회원 35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신지애의 경쟁자 가운데 커를 제외한 오초아, 미야자토 등이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또 지난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최나연(22·SK텔레콤)도 상금세를 살려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경우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오르며 다른 부문에서도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가능성을 부풀리게 된다. 일본에서 열리는 때문에 미야자토를 비롯한 일본 선수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미야자토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신지애에 무려 17타나 뒤진 공동 51위에 그쳤지만 올해 일본투어에서 상금 랭킹 상위권인 모로미자토 시노부(1위), 요코미네 사쿠라(2위), 아리무라 치에(4위) 등도 복병이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미정(27), 이지희(30·이상진로제팬), 송보배(23) 등의 우승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 선수가 남은 3개 대회에서 2승 이상을 올리면 역대 한 시즌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종전 기록은 2006년 11명의 선수가 1승씩 11승을 거둔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올해는 신지애 3승, 최나연 2승을 포함해 현재까지 10승을 올렸다. /연합뉴스



‘호랑이 사냥꾼’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다시 맞붙어 화려했던 2009 시즌의 대미를 장식한다.

## 양용은, 우즈와 재격돌

올 시즌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과 혼다클래식 우승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 양용은은 5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천143야드)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인 HSBC 챔피언스에 출전한다.

2006년 대회에서 양용은은 우즈를 따돌리고 우승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렸기에 인연이 깊다.

더욱이 이 대회는 올해부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아시아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 호주프로골프투어, 선사인 투어(남아공)가 공동 개최하는 WGC 시리즈로 격상됐다. 총상금만도 700만달러에 이르러 출전 뎀버도 화려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용은과 우즈의 재대결이다.

양용은은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와 짝

내일부터 중서 HSBC 챔피언스

미켈슨·가르시아 등도 출사표

을 이뤄 이달 26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국가대항전 월드컵골프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지만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로는 HSBC 챔피언스에 12일 열리는 아시아투어 UBS홍콩오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 또한 이 대회 이외에는 정규투어 출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양용은과 시즌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됐다. 지난 달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 뒤 메이저대회 챔피언십이 열리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했던 양용은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바쁜 일정을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날아갔다.

힘든 일정을 보낸 양용은은 지난 달 27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은 대회에서 성적이 연연하지 않겠다. 성원해준 팬들에게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남은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용은은 “200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자신감이 생겨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됐다”며 HSBC 챔피언스와 인연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단 대회가 시작되면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는 것이 프로의 세계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양용은이 지난 달 프레지던트컵 대회 이후 한달간 휴식을 취한 우즈와 대결에서 다시 이변을 일으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강호 폴 케이지, 리 웨스트우드(이상 잉글랜드),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상위 랭커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캘러웨이)과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이시카와 료(일본)와 영건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 코골이 고치면 골프 잘친다?

만성 코골이 증상이 골프 핸디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메모리 알버트의 연구진은 코골이 증상 치료 후 골퍼들의 핸디캡을 3타 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에 시달리는 골퍼 12명을 대상으로 양압술 치료 전과 치료 후 핸디캡 점수와 낮의 졸음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수면 중 호흡 정지 증세가 빈발하는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증 등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된다.

치료를 받은 골퍼들은 3~5개월에 걸쳐 20회 골프 라운딩을 하는 동안 졸음증과 함께 핸디캡이 개선됐다. 골퍼들의 핸디캡은 평균 9.2에서 6.3으로 개선됐고, 졸음증도 10.8에서 2.8로 좋아졌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은 12명의 골퍼들은 아무런 개선도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 찬호, 위기의 팀 구했다

10닝 완벽투... 필라델피아, 월드시리즈 2승3패

‘코리아특급’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이틀 연속으로 점수를 내주지 않으며 뛰어난 피칭을 펼쳤다.

박찬호는 3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5차전에서 8-4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올라 10닝을 잘 막았다.

비랑 끝에 몰린 필라델피아는 선발 클리프 리의 호투속에 주포 체이스 어틀리가 홈런 두 방으로 4타점을 올리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쳐 8-6으로 승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19승 투수 C.C 서바시 아들 상대로 홈런 3개를 날리며 필립 날았던 어틀리의 방망이는 이날도 초반부터 터졌다.

어틀리는 0-1로 뒤진 1회 AJ 버넷을 상대로 3점 홈런을 날려 기선을 제압했다. 무사 1, 2루에서 버넷의 시속 151km짜리 초구 강속구를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훌쩍 넘겼다.

이로써 어틀리는 올 월드시리즈에서만 홈런 5개를 날려 레지 잭슨(1977년)의 월드시리즈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어틀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8타점을 쏟아 담았고 타율은 0.333을 작성하고 있다.

필리스는 3회 무사 1, 2루에서 제이슨 워스와 라울 이바네스의 안타 등으로 3점을 뽑았고, 7회에는 어틀리에 이어 이바네스가 솔로포를 추가했다.

마운드에서는 1차전 승리투수인 리가 위력적인 구위를 펼쳤다. 리는 1차전에서 사바시아와 맞대결을 벌여 1점(비자책) 내주고 완투승을 거뒀다.

1차전(10개)에 비해 삼진 수는 3개로 적었으나 절묘한 제구력을 앞세워 양키스 강타선을 농락했다. 1회초 알렉스 로드리게스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았고, 5회에도 1점을 허용했으나 대량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잘 버텼다.

하지만 8-2로 앞선 8회초 연속 3안타로 2실점하며 흔들렸다. 그러자 찰리 매뉴얼 필

리스 감독은 곧바로 박찬호를 마운드에 올려 양키스의 추격을 저지하고 나섰다.

박찬호는 첫 타자 니 스위셔에게 구속 145km짜리 싱클을 초구로 던져 스트라이크로 잡았다. 볼카운트 2-2에서 다시 싱클을 던져 2루수 땅볼로 유도했다.

로빈슨 카노에게는 이날 최고 구속인 151km짜리 직구를 던져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이때 3루 주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홈을 밟았지만 리가 내준 주자라 자책점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박찬호는 이어 브렛 가드너를 유격수 플라이로 속아내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박찬호는 9회 라이언 매드슨으로 교체됐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3번째 등판한 박찬호는 이로써 2%이닝 동안 단 한 점의 자책점도 기록하지 않으며 좋은 피칭을 펼쳤다.

반면 양키스는 믿었던 선발 버넷이 3회 일찌감치 강판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9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점을 뺏으며 추격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6차전은 5일 뉴욕의 뉴 양키스스타디움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다. /연합뉴스



## 이승엽 홈런포 일본시리즈 3차전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시리즈 3차전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3일 도쿄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 일본시리즈 3차전에서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 0-2로 뒤진 2회말 첫 타석에서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은 니혼햄 선발 이토카즈 게이사쿠의 2구째 직구가 가운데 높은 코스로 들어오자 놓치지 않고 잡아당겨 홈런을 만들어냈다.

이승엽의 홈런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요미우리는 다음 타자 아베 신노스케가 왼쪽 펜스를 넘기는 연속타자 홈런을 터뜨려 2-2 동점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 천하무적 야구단

### 아마야구 홍보대사

대한야구협회는 3일 오후 2시 고려대 송추야구장에서 최근 KBS 2TV 오락프로그램 ‘천하무적 토요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천하무적 야구단을 아마야구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하늘·김창렬·임창정 등으로 이뤄진 천하무적야구단은 방송에서 동호인 팀과 경기를 펼치며 야구를 배우는 과정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천하무적야구단은 앞으로 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여러 대회와 행사에 참석하면서 야구 발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한야구협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천하무적야구단의 모습이 야구협회가 추구하는 야구정신과 잘 들어맞는다”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